

# 김장하는 집 전체가구의 55% 뿐

농촌경제연 분석, 10년 새 15% ↓

## 김치 소비량도 5분의 1 수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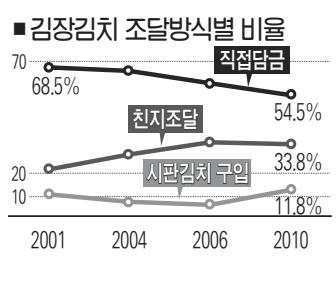
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정이 10년 만에 15% 줄어들고 김치 소비량도 5분의 1로 감소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전국의 22%에 이르고 겨울 배추는 전국의 92%를 생산할 정도로 최대 배추 생산지인 만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서라도 김장 수요를 유발·촉진하는 대책과 가정 식생활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1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연간 김치

소비량은 지난 2000년 전후 36kg에서 지난해에는 28kg까지 줄어 약 20% 감소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09년 기준 하루 김치 섭취량이 62.9g으로 남성(96g)의 66%에 그쳤다.

김치 소비량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습관 변화 때문으로, 31.4%가 '다른 반찬을 더 먹기 때문에'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응답(5.7%)도 적지 않았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정의 감소 세도 뚜렷했다. 지난 2010년에는 전체 가구의 54.5%만 김치를 담가, 10년 전인 2001년(68.5%)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친지에게서 조달(33.8%)하거나 시판 김치를 사먹는 가구(11.8%)는 증가했다.



직접 김치를 담그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번거롭고 바빠서(38.5%)'였으며, 저렴한 비용(20.8%), 보관상의 어려움(19.4%) 등이었다.

이 때문에 김장제소 수급 안정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절임배추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가정에서 김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김치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홍보 마케팅 전략과 '김장 한포기 더 담그기' 장터,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최대 배추 생산지인 전남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추 가공 유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 김치 가공업체

### 40억 지원한다

전남도, 6개월 무이자

전남도는 김장 체소 수급 안정을 위해 원료 매입 확대와 김치·배추절임 가공량을 늘리기 위해 도내 19개 김치 가공업체에 운영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총 40억원으로 응자를 희망한 김치가공업체에 6개월간 무이자 지원된다.

운영자금 지원대상 업체는 해남 화원김치공장 10억7000만원과 순천농협남도김치 7억5000만원, 해남 춘정영농조합법인 6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19개 업체의 배추 매입량이 지난해 1회에 비해 2배 정도가 늘어난 2만200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북은 김치나 절임 배추 등 가공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배추의 시장 출하량과 출하 시기를 조절해 김장 체소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6일 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세관학교 수료식을 열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 광주세관, 어린이세관학교 수료식

주택금융공사 사장 서종대씨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6일 11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세관학교(Kids Customs School) 운영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세관학교는 지난 9월24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노는 토요일을 활용하

여 총 5회에 걸쳐 관세행정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그동안 어린이들은 무안공항 현장 체험, 어린이 기자체험, 다문화 체험을 했으며 방송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당한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는 등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

이날 주영섭 관세청장은 영상을 통

한 축하메시지로 어린이 세관학교 체험과정 수료 어린이를 격려했으며 참가 체험수기 우수자 및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세관학교는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미래 진로선택을 위한 생생한 직업체험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가 지속적으로 주진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40세 이상 전남 주민 절반 "노후 준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서종대

(51) 전 행정 중심복합단지건설청 차장이 임명됐다.

순천 출신인 서신임 사장은 순천 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신도시 기획단장·주택국장 등을 지냈으며,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지역 40세 이상 인구 가운데 1명은 국민연금·예금저축, 개인연금 등의 순으로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항목 중 노후준비 방법, 다른 시도 이동사유, 생활여건 만족도 등을 별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노후준비의 경우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연령대는 40~44세로 12만

8859명 중 8만8468명(68.7%)이나

됐다. 다음으로 45~49세가 13만 2750명 중 8만9099명(67.7%), 75세 이상이 14만5102명 가운데 3만8042명(26.2%)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노후준비 방법은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국민연금 29만4433명(57.7%),

예금저축 17만9845명(35.2%), 개인연금 15만6115명(30.6%) 순이었다.

이는 연령대는 40~44세로 12만

## 로또복권 (제469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21	22	34	37	3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330,131,250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7,275,379	33			
3	5개 숫자 일치	1,738,519	1,277			
4	4개 숫자 일치	50,000	65,880			
5	3개 숫자 일치	5,000	1,125,554			

당첨 번호 4, 21, 22, 34, 37, 38의 당첨자수는 4명이다.

2011년 10월 30일(수) 13:00~14:00

당첨금 26조3천 원

당첨자수 271명

당첨금 7,000원

당첨자수 271명

당첨금 1,000원

당첨자수 271명

당첨금 100원

당첨자수 271명

당첨금 10원

당첨자수 271명

당첨금 1원

당첨자수 271명